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 하느님 사랑 십자가의 길

심홍보 신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 하느님의 사랑 십자가의 길

머리말	3
십자가의 길 14처	5
십자가의 길 0 가톨릭 기도서	6
십자가의 길 1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13
십자가의 길 2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2요한 2,11)	26
십자가의 길 3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유다 1,20)	38
십자가의 길 4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	49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지난 2014년 사순절에는 성가정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재의 수요일 다음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가톨릭 기도서의 십자가의 길을 바쳤고, 사순 제1주간에서 사순 제5주간 금요일까지,

첫 주간은 ‘일반 개인 차원의 주님을 향한 영성의 길목에서’,

둘째 주간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셋째 주간은 ‘부부의 정을 기리며’,

넷째 주간은 ‘자녀의 꿈을 이루며’,

다섯째 주간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사도직 활동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성가정 십자가의 길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순 시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바칠 십자가의 길의 주제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교구 사제피정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번에는 사 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둘째 주간은 ‘교회를 주제로 묘사한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를,

셋째 주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다섯째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16년 제주 엠마오 연수를 다녀오면서 한 해 쉬다가, 수색 예수성심 성당에 부임하며 위의 두 십자가의 길을 반복하면서, 2019년 자연스레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헌신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첫 주간은 ‘로마서의 희망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믿음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코린토 후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갈라티아서의 찬미와 영광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0년에는 사도 성 바오로의 서간을 따라 ‘평화 위로 감사’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에페소서의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힘과 용기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콜로새서의 용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테살로니카 전서의 감사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사도 성 바오로의 서간을 따라 ‘믿음의 사도’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테살로니카 후서의 은총과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티모테오 전서의 믿음의 사도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티모테오 후서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티토서의 은총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필레몬서의 형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아 교구 사제 피정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와 요한 서간을 따라 ‘고난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히브리서의 희망과 생명’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야고보서의 말씀 실행’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베드로 전서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베드로 후서의 구원의 기회’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요한 일서의 약속’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 교구 사제 피정을 마치고 욕심을 내서 요한 서간과 유다서와 요한 묵시록을 따라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마저 그려 2022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첫 주간은 ‘요한 일서의 하느님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요한 이서와 삼서의 진리와 사랑’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유다서의 자비’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요한 묵시록의 아멘’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2년 2월 봉헌 생활의 달에
등촌3동 103위 한국순교성인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 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목상합시다.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목상합시다.

제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목상합시다.

제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제 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목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목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목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십자가의 길

- 가톨릭 기도서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러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들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 요한 일서의 하느님의 사랑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1요한 4,1-2)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럴싸한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외삼촌이나 작은어머니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마다 공허할 때마다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1요한 4,4.6)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주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주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해도 망하지 않고

죄를 저질러도 패망까지 가지 않으며

용서와 재생의 길을 자비로이 허락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잘못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7-8)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나지 못해,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사랑이 좋은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이 사랑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1요한 4,9-10)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많은 사람이 호응하지 않고
홀로 버려진 듯 떨어져 있을 때,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 까부라집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며 기도하며 매달리면,

우리는 평안해지고, 다시 또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니 늘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주시며 주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1요한 4,11-12)

비단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마치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1요한 4,13.15)

우리 마음속에 주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걱정하면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쉽게 느끼고,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느님께 다가서게 해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1요한 4,16-17)

비록 여기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마다 평안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정작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섭리 안에서 이끌어주시어

우리가 아예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배해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요한 4,18-19)

우리가 비단 누구나 선한 마음으로 갖는 착한 종교 심성과

누구나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드는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여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졌을 때도,

어려운 형제자매들 안에서 아파하시며 호소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시는 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용서해주시며 위로해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요한 4,20-21)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해코지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시기에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청하고 기댈 것이 많아서 그런지
믿고 따라도 우리를 다 바친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나 믿질 것이 없으신데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은
왜 그렇게 싫고 좋은 점이 많은지
왜 그렇게 눈꼴 시고 포근한 점이 많은지
그를 볼 때마다, 또 그를 향해 내 안에서 들끓는 감정들이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 하느님께서 내가 가지지 않은 점을, 내게 모자란 점을 그에게 주셔서
나를 거룩함으로 더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 초대하시는가 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요한 5,1-2)

우리가 주 하느님께서 내게 남달리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주 하느님께서 내게 남달리 심어주신 장점과 소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주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장점과 소질을 계발하여
그에 따른 소명을 실현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장점과 소질은 낱알이 발견하고 질투와 시기를 일삼으면서
내게 베풀어주신 나만의 장점과 소질은 왜 바로 발견하지 못하는지요.

저마다의 장점과 소질을 계발하여 각자 나름대로 공동체에 기여하여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1요한 5.3-5)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주 하느님의 사랑은 죽어주시는 것이었나 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군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살 차례이군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시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1요한 5,6-8)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 그분을 알아주었는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사를 바치실 때 누가 그 의미를 알았던가요?

주님과 공생활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으며, 부활하시어 발현하셨음에도 의심했듯이

주님의 생애는 우리가 감히 깨우치고 쉽게 뒤따르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성령에 취하여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선포에 나설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주님 부활의 신비를 깨우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부활 신앙을 살아 내어 마침내 증거하며 전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1요한 5,11-12)

땅에 묻혀 죽은 씨앗에서 새싹이 움터 올라서야 살아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무미건조하고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죽어 묻히시는 주님의 시신에서 부활의 서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복음과 예언과 거룩한 약속이 꿈과 이상과 함께 죽어만 가는 듯한 현실,
 죄악이 난무하고 승리하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의 새 빛이 움터오기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1요한 5,13-15)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어디 구원의 희망이 있느냐!’고.

‘죽어서 묻히는 이 순간에, 무슨 의미와 가치와 영광 희망이 있느냐?’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그러기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 청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기도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고 또 그 뜻이 무르익어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마침내 이루어주시리라는 것을 믿기에……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1요한 5,18-20)

우리는 주 하느님께서 언제 어떻게 온전히 다 이루어주실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쉽게 단언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청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지향과 노력을 아시기에
우리를 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께 의탁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이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이더라도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다시 또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루실 업적을 바라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2요한 1,1)

- 요한 이서와 삼서의 진리와 사랑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2요한 1,1-2)

예수님께서서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요한 3,21)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고

올바르고 곧게 살면서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2요한 1,3)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총과 무한한 자비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잔잔한 기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안겨주십니다.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사랑과 진리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일수록

주님 품 안에서 더 깊이, 더 충만히 느끼도록 해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2요한 1,4-6)

진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무한한 자비이시며

사랑으로 전달되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맺어준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완성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뵈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에게 참 평화와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기회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2요한 1,7)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 뇌리 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진리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합니다.

어머니의 존재 안에 하느님께서 사랑을 애초부터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2요한 1,9)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내어 주시리라고

최후의 만찬 때에 성체성사를 세우시며 미리 알려주시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죽을 상황과 처지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새 생명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2요한 1,10-11)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일러주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하게 됩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기뻐서 함께하였듯이

마치 연인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들과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아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월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3요한 1,1-2)

인간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반갑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행하는 주님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축원하고
아무쪼록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 사랑의 말씀을 실현하며,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큰 장애가 없기를 바라게 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3요한 1,3-4)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자신이 수행하는 주님의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거룩하게 정진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사도들과 주님의 사업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열매를 맺어가며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주님의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마다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비록 우리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을 통해

주 예수님의 거룩한 업적을 이루실 때마다 주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곁에 다다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주 하느님께서 계속 커다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맞갖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3요한 1,5-6)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때,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 놓일 때

주님께서 몸소 함께하시어 용기와 힘을 가득 부어주시어

과감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인 선교사들과 증거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풍성히 주어지기를 아울러 간구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3요한 1,7-8)

주 예수님께서 선교를 나서는 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루카 9,3)고 하시고,

사도 성 바오로는 자신 없어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라고 하며,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주 하느님과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 의탁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5)라고

한 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를 겸손되이 기다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디오트레페스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3요한 1,9)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서 벌어진 것이 아닌데도
 복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복음의 열매가 좋고 유익한 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악이 창궐하여 교묘한 술수로 복음의 열매를 방해할 때
 또 악마가, 복음의 사업에 함께 매진하는 동료들 사이에 분란을 심을 때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코 외적인 실패와 좌절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 그 자체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엄연히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 이루어져도, 내일이나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날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뵈지 못한 사람입니다.”(3요한 1,11)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도 이젠 지치고 힘겨워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세상도 우리를 찾지 않고 버려졌다고 느낄 때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길로 불러주시어
 복음의 일에 매진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필리 2,13)
사람들의 평가와 복음 사업의 외적인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히, 깊이 있고 맛깔스럽고 영양가 있는 양식으로
주님 사업의 도구가 되고자 하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3요한 1,12)

시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주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시고 축복해주실 분이 아버지 하느님이시듯이

우리가 복음 사업을 다 마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 번 쓰러지고 지쳐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주 예수님께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다르고 싶나이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여 자랑스럽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름의 수고를 다 하여

주님의 사업인 사랑을 이루는데 헌신하였음을 주 대전에 바치며

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3요한 1,13-14)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보던 복음의 실현을

잠시 잠깐 누리는가 하면, 곧이어 닥쳐오는 현실의 긴장과 갈등에 휩싸여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힘겨워하던 주님과의 기쁜 순간들을

주님 나라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고 느끼게 될 날을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라고 한

사도 성 바오로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3요한 1,15)

마지막 날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살면서 느꼈던 부족함과 한계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에서 벗어났던 모든 부족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미완성으로 늘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웠던 순간들이 다 씻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하던 주 예수님과 하나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화와 기쁨 속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생명을 바쳐 구하신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를 구하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유다 1,20)

- 유다서의 자비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유다 1,1-2)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상처 입은 예수님께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과 난관을 하소연하고,
인간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고,
평화를 얻기 위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인 예수님께 자비와 평화와 사랑을 청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참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유다 1,3)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갖가지 유혹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의 갖가지 이권에 휘말리지 않으며,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현할 힘을 청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유다 1,4)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피해
조용하고 한가하게 주님 대전에 나아와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유다 1,5)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긴장과 갈등 안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해결책을 찾으며

어머니 품 안에서 잠시라도 쉬고 싶어

어머니께 다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유다 1,6)**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욕과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서로가 경쟁자이고 적이며 아귀다툼 속에서 시달리다가

주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해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인간관계에 목말라

교회 공동체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욕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유다 1,7-8)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놀면서 함께 즐기기를 유혹하며
함께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줄 모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만 알고 해매다가
어두워지고 더럽혀지는 인격과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화되기 위해 새로워지기 위해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유다 1,9-10)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다가오고
자신을 이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접근하며
자신의 야욕을 숨긴 채 밀착하여
죄악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들에게 빠져
단물을 빼앗기고, 버림받고 상처받아
외롭고 억울하며 허탈해진 영혼을 위로받기 위해

주 예수님께 매달리러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저들은
여러분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 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두 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힐 떠돌이 별입니다.”(유다 1,12-13)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유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함께 저지른 일이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한심스러운 일이기에
스스로의 어리석고 처참한 처지를 되돌아보며
주 예수님께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저들을 두고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지껄인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유다 1,14-15)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설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스스로 미로에 갇혀버린 영혼들이

방향 잃고 헤매는 괴로운 방향을 끝내기 위해

주 예수님께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청하며 성당에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잇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소리칩니다.”(유다 1,16)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사랑과 희생의 길을 놓치며
자꾸만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유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주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참 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러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유다 1,17-18)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수행에서 오는 비윤리와 비인격 상황과

자기가 속한 조직의 논리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거듭 빠져들어 결과적으로 굳어만 가는 죄악의 세상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새 생명을 청하러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유다 1,19-20)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체계와

자신의 직무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 반복되는 실수와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계속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주 예수님을 향하고 싶고

주님 구원의 은총에 속하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는 주님 대전에 다닙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유다 1,21-22)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전 앞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도
 주님을 믿는 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처지를 곱씹으며
 자신의 부지불식간의 행위와
 자신의 무신경한 처사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나쳐 버린
 많은 아픔과 곪아가는 상처들을 짐처럼 둘러업고
 모든 최악의 폐해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걸머지고
 우리 대신 희생하여 만신창이가 되신 주님께 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유다 1,23)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하고 나약한 한계와
 세상 구조와 조직 체계상의 허점과
 미처 다 헤아리거나 배려하지 못한
 실책과 폐해와 해악을 모두 뒤로 한 채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붕괴를 다 감싸 안고 위로하며,
 덮어주고 풀어 주며 새 세상을 향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유다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유다 1,24-25)

성당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열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더 이상의 눈물이나 한숨이나 차별이나 무시나 배제가 없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나라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 주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은총 앞에 부끄럽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아리며 즐겨 다닙니다.

주님 생명을 바쳐 구하신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를 구하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이끄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 22,20)

- 요한 묵시록의 아멘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말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묵시 1,5-6)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탐욕과 질시를 대신 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묵시 1,8.17-18)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우리를 풀어주시니

우리는 진정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묵시 2,1.4-5.8.10)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열정으로

우리 죄악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건만

그 죄악의 질과 양이 너무 크고 무거워 쓰러지시고 맙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내주시는 주 예수님

주님 생명의 힘으로 저희를 새로 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곳곳이 걷게 해주소서.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너에게는 발라암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라암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오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묵시 2,12.14-16)
예수님을 알고 이해해주고 동참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어머니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십니다.
지치고 허망해만 보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정작 인정받아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쳐 쓰러져갈 때
어머니만이 예수님의 수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해주십니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너는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하느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 있지만 죽어 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묵시 2,18.20; 3,1-2)

주님께서는, 자선이 죄악을 씻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고 힘겨운

우리 죄의 어둠과 흔적과 폐해의 결과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선과 용서를 통해

주님을 향한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세상을 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드리고 동참하여

구원의 은총에 미소하게나마 다다르게 하소서.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 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7-8.14-16.20)

우리의 작은 노력도 크게 보아주시고
당연한 것도 큰 업적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도 모르게 숨겨진 좋은 말과 행동도 찾아내시어
상을 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주 예수님
주님을 마음에 담으려는 우리를 어여뵈 여기시어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총을 심어 주소서.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여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여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취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묵시 4,2-3.8)

예수님께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실 때

천상의 백성들이 함께 쓰러집니다.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도 더불어 무너집니다.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과 이해타산을 넘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시니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거듭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에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 어린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묵시 5,7-10)

예루살렘 부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안쓰럽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정작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민과 측은지심이, 서로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나이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어린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 낼 수 있겠느냐?”(묵시 6,9-10.15-17)

예수님, 저희는 죄인이옵니다.

우리의 부도덕하고 불합리하며 부정한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마주 뵈올 수조차 없는 죄인이옵니다.

주위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얼토당토않은 운을 탓하며,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복음의 빛으로 새로 내려는 꿈도 의지도 없이 허덕이며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니 감읍하옵뿐이옵니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찍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묵시 7,9.14-16.17)

저희가 저지른 갖가지 죄악과 못다 이룬 사랑의 상처로

십자가상에서 옷마저 벗겨져 만천하에 드러나신 주님,

주님 앞에 감히 민낯을 들어 뵈지도 못하는 우리 처지이건만

주님을 향한 저희의 보잘 것없는 정성과 부당한 찬미를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쥐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실 때가 왔습니다.’”(묵시 11,15.17.18)

주님, 송구스럽게도 주님의 몸에 못이 박힐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구원의 희망을 영예롭게 간직한 채

주님 사랑의 힘으로 새 생명을 만나이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자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묵시 12,5.10-11)
 아는 이만이 알듯이, 아는 만큼만 알듯이,
 깨달은 이만이 깨달듯이, 깨달은 만큼만 깨달듯이
 주님의 돌아가심을 승리로 아는 이들의 착각과 허무를 뒤로하고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죄악에서 풀려났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신앙고백과 회개를 통해
 복음의 길을 향한 미소한 첫발을 내딛으며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묵시 15,3-4)
 얼른 치워 버리고만 싶은 악마의 싸늘한 획책을 뒤로 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후회를 담뱃 안고
 주님의 시신이 공허하고 허망하게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처절한 몰골과는 달리
 믿는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때에 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묵시 19,5-7)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잠시 쉬러 가십니다.
 주님께서 쉬시러 가시는 곳은 죄악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
 죽은 이들이 신음하는 세계입니다.
 살아 있는 이들에게 해줘야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죽은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러 다가가십니다.
 지상과 지하의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을 구하시는 주님께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1,1.3-5; 22,17.20)

우리를 구하기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 숭고한 사랑을 향한 우리의 찬미를 받으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빛더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 돌아오신 주 예수님,

그 해방과 구원의 업적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 살아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어받아 비천한 우리의 몸으로 뒤따르게 하소서.

부끄럽고 부당한 죄인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생명을 바쳐 구하신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를 영원히 구하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